

“경로당엔 언제쯤”... 더 우울한 노인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두달 넘게 경로당 문닫혀
코로나19 장기화나 유사상황 대비한 정책 보완 필요

제주시에서 거주하는 80대 김모 할머니는 요새 아침에 일어나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종일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 2월 하순 마을경로당이 문을 닫기 전까진 낮 시간을 경로당에서 오래 머무르고 말뚝에 점심식사도 하며 무료하지 않게 보냈던 터라 부쩍 사람이 그리울 때가 많다.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사회와의 단절에 노인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

역시 거리두기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지만 나홀로 가구가 많은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 중심의 비대면 문화와는 거리가 멀어 고립감이 더 크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유사상황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10개 권역(제주시 6개, 서귀포시 4개 권역)으로 나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인돌봄기본·노인돌봄종합·단기가사 등 5종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5000여명과 긴급돌봄노인을 대상으로 상황별로 마스크를 끼고 방문하거나 안부전화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아업인 노노(老老)케어를 통해 한 달에 10차례 말벗서비스를 받던 나홀로 노인들은 두 달 넘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제주시의 경우 올해 노노케어 수혜 대상이 500명에 이르면서 방문을 못하는 대신 전화로 안부묻기 등 고독을 달래줄 운영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로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하던 저소득층 노인들도 사람의 체온이 그리운 마냥가지다. 경로식당은

한끼 식사 해결 외에도 집에서 혼자 가 아닌 여럿이 하는 식사에 대한 기대감에 이용자들은 운영 재개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가 운영하는 경로식당은 주6회 100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던 데서 2월 하순부터는 접촉 최소화를 위해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즉석밥·라면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250명에게 주3회 경로식당을 운영하던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도 현재 주1회 대체물품으로 제공중이다.

행정시 관계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노인들에게 마스크·손세정제 전달은 물론 방문을 원치 않을 경우 전화로 안부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1일 금요일 음 4월 9일 (1월)

기상정보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0%	제 주	10%	
0%	성 산	10%	
0%	고 산	10%	
0%	서귀포	10%	

주간예보

내일	☀️	호리고 가끔 비	17/22℃
모레	☁️	호리고 비	16/21℃

맑음

제주도는 맑다가 밤에 흐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18℃, 낮 최고 기온은 21-26℃를 기록하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물결은 제주도남부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서 0.5-1.0m로 일겠다.

해돋이 05:46	달뜨기 12:14
해질 19:17	달지기 01:45
만조 05:12	간조 12:03
17:11	23:33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주의	낮음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한림항~비양도 결국 행정선 투입된다 제주시 “1일부터 하루 4차례 운항... 정원 52명”

속보=제주시 한림항에서 ‘섬속의 섬’ 비양도를 오가는 2개 도항선사의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면서 결국 1일부터 24t급(정원 52명) 행정선 ‘비양호’가 투입된다. 하지만 승선인원이 기존 도항선의 절반에도 못미치면서 황금연휴를 맞아 지난달 29일부터 하루 4만명 안팎의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은 상황에서 섬으로 들어가는 승객들이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30일 제주시에서 따르면 한림항~비양도 항로에 하루 왕복 4차례 행정선이 운항된다. 한림항에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2시와 4시 비양도로 출항한다. 제주시는 행정선 운항을 위해 선장, 기관장, 기관장, 매표소 직원을 채용했고 지난달 27일 시범운항 후 미비점을 보완해 29일 제주해경으로부터 도선 면허를 발급받았다.

한림항~비양도 항로는 제주시가 2012년 구입한 도항선을 민간에 위탁운영해오다 2017년 6월부터 비양도 주민 53명이 출자해 설립한 제1선사인 (주)비양도천년랜드(29t, 정

원 100명)가 운항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주민 15명이 주주로 참여한 제2선사인 (주)비양도해운(48t, 정원 120명)이 취항하면서 선착장 등 공유수면 사용을 둘러싸고 고소·고발 등 다툼을 이어왔다.

제주시는 여러 차례 중재에도 양선사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4월 30일까지 상생 합의를 도출하지 않으면 2개 선사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모두 취소하겠다고 밝혀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어제 낮 최고기온 24.8℃ 기상청 “따뜻한 바람 유입”

30일 제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제주의 낮 최고기온이 24.8℃를 나타내며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따뜻한 남풍계열의 바람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높았다”면서 “특히 편현상(공기가 높은 산을 넘어며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에 의해 제주의 낮 기온이 서귀포보다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1일에는 기온이 전날보다 1-2℃ 더 올라 올해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기상청은 2일 제주지역에 비가 내릴것으로 예보했다. 이상민기자



부처님 오신 날인데... 한산한 사찰 풍경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날인 30일 서귀포시 대포동 약천사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자들의 발길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장질환 아이 출산 간호사 첫 산재 인정

대법원 “태아질환도 산재”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 승소

열악한 근로 환경 탓에 출산한 아이에게 선천성 질환이 생겼다면 이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A씨 등 4명이 “요양급

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은 유산 징후 등을 겪는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2010년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 4명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요소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에 질병이 생겼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

구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적용 범위에 태아가 포함되는지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은 근로자 본인에 국한돼 태아는 요양급여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간호사들은 태아가 어머니 몸 안에 있을 때 병에 걸린 만큼 모체의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건강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며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업무상 입은 재해로 인해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더라도, 이는 아이 어머니의 질병이어서 어머니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를 이유로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면서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고 판단했다.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도움 받으세요.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하고 임대기간동안 환매권을 부여하여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 보장 (부분환매, 분할납부, 수시납부 가능)

문의처 1577-7770 www.fbo.or.kr

해택 대상 농지에 대한 임차권, 환매권 보장

신청대상 대상자 -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부채가 3천만원 이상(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매입대상 -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및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지원조건 매입가격 - 감정평가금액(60,000원/㎡ 초과 농지 매입 제외)

임대료 - 매입가격의 1% 이내

임대기간 - 7년(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연장가능)

환매가격 - 환매시 감정평가가격과 농지매입가격에 연 3%를 더한 가격 중 낮은 가격 (임대기간 중 신청 가능)

한라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땅이 드리는 평생월급 농지연금

2019년 이후 가입자 월연금액 인상 지급

감정평가액 적용시(평가율 90% 반영)

→ 최대 **20.6%** 인상

공시지가 적용시 → 최대 **7.3%** 인상

가입혜택

소유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부부 모두)

담보농지 자경·임대를 통한 추가 소득 가능

6억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가입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 5년 이상(전제 영농기간 합산)
- 대상농지 : 본인 소유의 전·답·과수원 (공부상 지목기준)

문의처 **1577-7770**

※예상연금 조회하기 : 검색창에 **농지은행 www.fbo.or.kr**